



COP28 UAE

COP28 결과 공유 및 대응전략



기업의 글로벌 기후변화정책 대응전략

조영준 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기업의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 대응전략

2023. 12. 19.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1 2024년 최고경영자를 위한 8가지 우선순위



【 Contents 】

1 Gen AI: The start of something big

Innovators dominate headlines. Scalars dominate markets.

- 1 Technology's generational moment with generative AI: A CIO and CTO guide

2 Outcompeting with technology

Most digital transformations fail to deliver the expected impact. Our playbook has helped hundreds complete their reinvention and find the missing value.

- 13 Rewired to outcompete (McKinsey Quarterly)

3 The energy transition: Time is short

Commitments are abundant; actions, not so much. Leaders can make the next moves.

- 22 Full throttle on net zero: Creating value in the face of uncertainty
- 28 Scaling green businesses: Next moves for leaders
- 35 Decarbonize and create value: How incumbents can tackle the steep challenge

4 Growth: Choose a path

All roads do not lead to Rome. Leaders need to find the path that works for them.

- 45 The ten rules of growth
- 57 Five paths to TSR outperformance

5 What's your superpower?

Institutional capability building: sounds dull, right? It's anything but. Find out how distinctive companies get that way.

- 63 What's your superpower? How companies can build an institutional capability to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

6 Learn to love your middle managers

Stop thinking of middle management as a way station. Instead, make it a destination.

- 69 Middle managers are the heart of your company (McKinsey Quarterly)

7 Geopolitics: Beating the odds

A new world order might be emerging from the current upheaval. Leaders can anticipate some shifts and position their companies for success.

- 76 Black swans, gray rhinos, and silver linings: Anticipating geopolitical risks (and openings)

8 A new lens on the macroeconomy

Hard landing, soft landing, no landing at all? While analysts debate, smart leaders are moving on to consider the bigger picture.

- 81 Why the path of global wealth and growth matters for strategy (McKinsey Quarterly)

1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매킨지 보고서)

서문

- **우리 생애 가장 큰 자본 재배분**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부분에 수천 개의 새로운 녹색기술 사업 창출하는 것
 - 투자해야 한다.

보고서

- **불확실성에서의 가치창출**
 - 기업들은 넷제로 전환에서 가치창출을 가속화
 - 초기의 전략적 움직임은 비용과 탄소절감, 녹색 프리미엄, 강력한 시장지위 확보 가능
 - 속도를 늦추는 플레이어는 뒤쳐질 것

Scaling green businesses: Next moves for leaders

New challenges—and opportunities—have emerged for green business builders. A set of actions could help companies scale during these uncertain times.

This article is a collaborative effort by Rob Bland, Laura Corb, Anna Granskog, Tomas Nauclér, and Giulia Siccardi, representing views from McKinsey's Sustainability Practice.

Full throttle on net zero: Creating value in the face of uncertainty

To thrive amid shocks to the net-zero economy, leaders are shifting strategies to position themselves to win when the skies clear up.

by Laura Corb, Anna Granskog, Tomas Nauclér, and Daniel Pachod

Decarbonize and create value: How incumbents can tackle the steep challenge

While the task is not easy, incumbents—including those in hard-to-abate sectors—can decarbonize and generate value through a series of key a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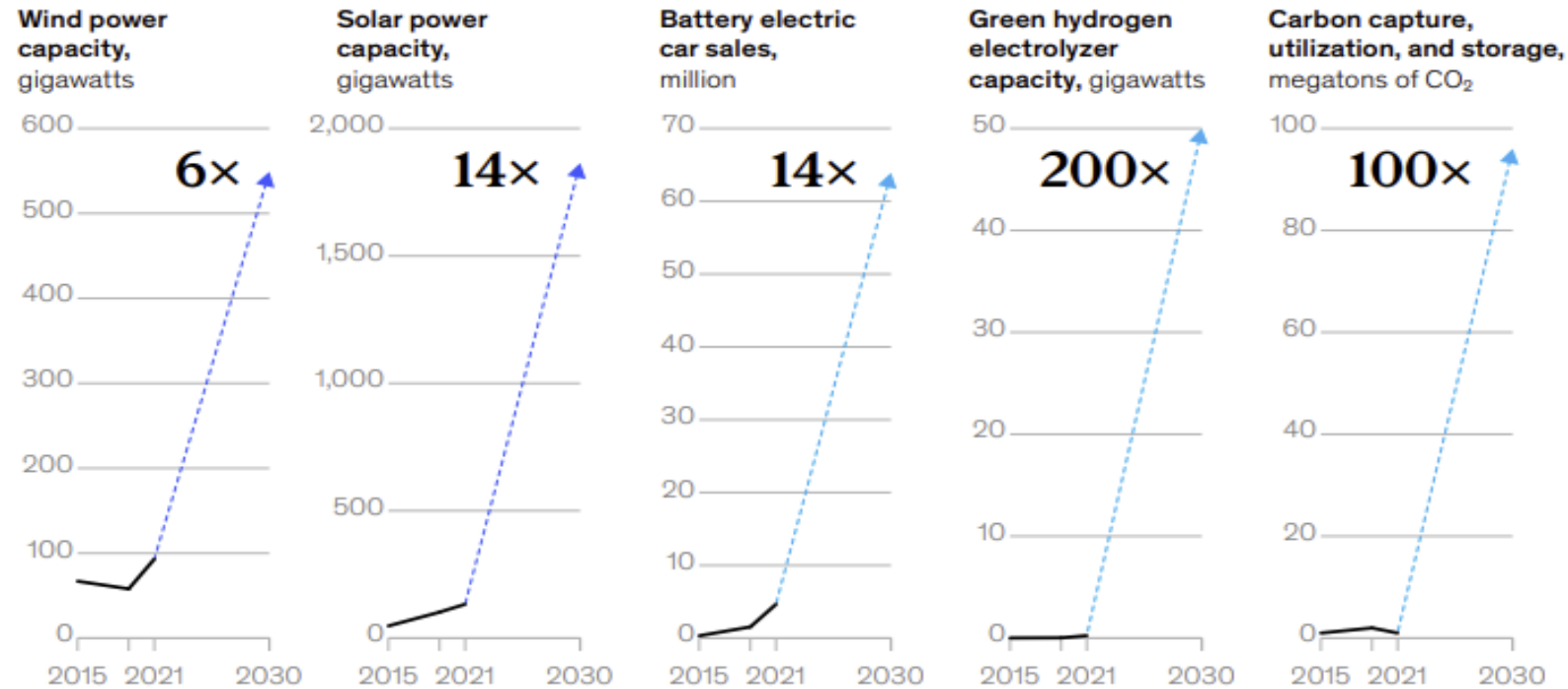
This article is a collaborative effort by Peter Crispeels, Dieuwert Inia, Henry Legge, Tomas Nauclér, and Philipp Radtke, representing views from McKinsey's Sustainability, Global Energy & Materials, and Advanced Industries practices.

1 친환경비즈니스 확장: 리더를 위한 다음 행보

To reach net-zero targets, a set of existing climate technologies would need to scale exponentially by 2030.

Annual deployment of climate technologies needed,¹
multiples of current supply

-----> Mature -----> Early adoption



¹Based on the McKinsey 1.5°C achieved commitments scenario, which represents existing commitments from companies and policies from countries. To conduct this analysis, we estimated the current trajectory of supply of key climate technologies (based on historic and current activity), factored in current emissions-reductions commitments from countries and governments, and assessed the supply of these technologies that would be required by 2030 to stay on track for a 1.5° pathway.

Source: EV-Volumes; IE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McKinsey analysis

참고 현장 사진

스타트업빌리지



2 COP28 개요

회의 개요

- **회의**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 **기간** '23.11.30(목) ~ 12.13(수) **장소** UAE 두바이
- **참석** 198개 당사국에서 정부 대표단·산업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 9만 명 참석

주요 이벤트

- 12.1~2 **기후정상회의** 개최 * 160개국 정상급 인사 참여. 우리나라는 조홍식 대통령특사 참여
- 12.1 '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서약 * 118개국 참여
기후클럽 공식 출범 선언식 * 36개국 참여
'50년까지 원전 설비 3배 확대 서약 * 22개국 참여
- ~12.13 오후 9시 폐막. **UAE 컨센서스**(UAE consensus) 도출

정상회의

(12.1~2)

- 160여개국 정상급 대표 등 참여해 **기후재원 확대 모멘텀 형성**
 - 지난해 COP27에서 약속한 '손실과 피해 기금' 초기 재원으로 총 7.9억불 이상 조성
 - * UAE 1억불, 독일 1억불, 이태리 1억 유로, 영국 4천만 파운드, 미국 1,750만불, 일본 1천만불 등

2 주요 협상결과

주요 결정 사항

- **UAE 컨센서스**(UAE consensus) **도출**
 -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하겠다(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는 전 지구적 목표를 최초로 명시
 - * 산유국들의 반대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 → ‘전환(transition)’으로 후퇴
-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실시**
 - 당사국들의 2030 NDC 목표 달성시 전 지구적 온도상승 2.1~2.8°C로 예상
 - 1.5°C 목표 달성 경로* 재확인 * '30년까지 '19년 대비 43% 감축 → '35년 60% → '50년 탄소중립

총 평

- 산유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화석연료) 전환**’이 주요 의제 대두
 - 당초 기대(석탄 및 화석연료 퇴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
- 2050 탄소중립 위한 중간 경로 확인 통해 **2035 NDC 목표 상향 압박** 증가 예상
- 정부 중심 → 기업·금융·기후테크 등 **민간 참여** 확대. 행사장의 기후산업 EXPO化

차기회의

- 내년 COP29은 11월 11~22일 **아제르바이잔(수도: 바쿠)**에서 개최 예정

3 산업계대표단 주요활동

주요 활동

- **산업부 간담회(12/4)**
 - 기후클럽가입, 30년까지 재생에너지3배, 에너지효율 2배 개선 서약, 50년까지 원전설비 3배 확대 서약 참여 의미 공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CFE공조방안 세미나 참석(12/5)**
 - CF얼라이언스의 의미, 참여확대 노력
- **국회 기후변화포럼-산업계 대표단 간담회(12/6)**
 - 우리기업들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보여주는 전시관 제안
- **국내기업의 탄소감축 노력 및 현안과제 세미나(12/6)**
 - 포스코, LG화학, SK C&C, 남동발전, 우아한 형제들 등
- **기후변화대사와의 간담회(12/6)**
- **환경부장관-산업계대표단 간담회(12/8)**
 - 탄소중립을 위한 업종별 노력에 대한 의견교환 및 애로사항 전달

4 주요 활동

12.8일(금)

▪ (탄소감축인증센터) 탄소감축인증센터 홍보 및 EPCM MOU 체결

- (일시) 12월 8일 18시 00분 @ COP 회의장 內 한국 홍보관
- (참여기업) 대한상의, 한수원, PwC, 신한투자증권, 영국 Hartree 등

구분	내용
일시 및 장소	'23.12.8(금), 17:00~18:30(총 90분) / COP Blue Zone 內 한국관
대상	총 11개 기업 및 단체 - SK Inc., E&S, Ecosecurities, 신한투자증권, 대한상의, 한수원, 남동발전, PwC, BVRIO, Hartree, 서울대 등
주요내용	EPCM Coalition 초기 멤버로 참여, EPCM Concept 개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수행 등
세부일정	① Carbon Developer (Ecosecurities社) 투자 및 탄소사업 협력 발표 (17:00~17:30) ② 대한상의-다자간 EPCM 활성화 협력 MOU 체결 및 EPCM 소개 (17:30~18:00) ③ 대한상의 인증센터 현황 및 운영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 발표 (18:00~18:30)

▪ 대한상의 탄소감축 인증센터 발표

- (주요내용) ① 인증센터 출범배경 및 기대역할, 탄소감축 인증프로그램 기본원리, 구성요소 등 개요 및 인증절차 소개
② 주요 운영성과 및 특화 사례 (친환경 특허기술 기반 스타트업 인증사례) 소개
③ 온라인 레지스트리 'Centero' 영상시연 및 특장점 소개 (w/C&C)

4 주요 활동

상설 전시부스 운영

▪ 인증프로그램 인지도 제고 목적으로, 상설 전시부스 운영

- (일시) 12월 8일 ~ 12월 9일 @ COP Blue Zone 內 B6-95 구역 (#42번 부스)
- (목적) 탄소감축 인증센터 및 프로그램 대외인지도 제고
- (운영성과) 전세계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잠재 인증수요 및 협력적 파트너 발굴 위한

Network 확보, Carbon Market Association of India (CMAI) 에서 향후 협력 제안

※ 부스방문객: 양일간 500여명 수준 (일본, 싱가포르,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브라질,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참고】 방문객 주요 FAQ

- KCS 인증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대한상의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 기업이 탄소감축활동을 하면, 대한상의회는 인증을 거쳐 기업의 넷제로 달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쇄 크레딧으로 전환
- 대한상의회는 정부 소속 또는 영리단체인가, 그리고 KCS 인증 시에는 비용이 소요되는가?
→ 대한상의회는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비영리 법인이며, KCS 인증 시 소정의 제반 비용이 소요됨
-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책이 있는가?
→ 한국 산업부와 연계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증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등을 통해 KCS 인증을 장려 중임

협력 Agenda 발굴

1. IETA 등*을 대상으로 인증센터의 대외 공신력 제고 계획을 설명하고 관심 당부

* IETA, Worldbank, VCS, GS, ACR 등

2. CORSIA에 등록된 주요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센터 소개 및 향후 협력 의사 전달

- CORSIA에 등록된 해당 기관의 특징점 및 신청시 Know-how에 관한 조언과 협력을 요청

* Cercarnono, GCC, 호주(Climate Active), 태국/일본 등

3. UN대학 등에 인증센터 中心 민간주도 탄소감축노력 전달 및 향후 COP內 공유 희망의지 피력

- 향후 한국에서의 다양한 기술기반 탄소감축 노력 및 대한상의 인증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5 기후테크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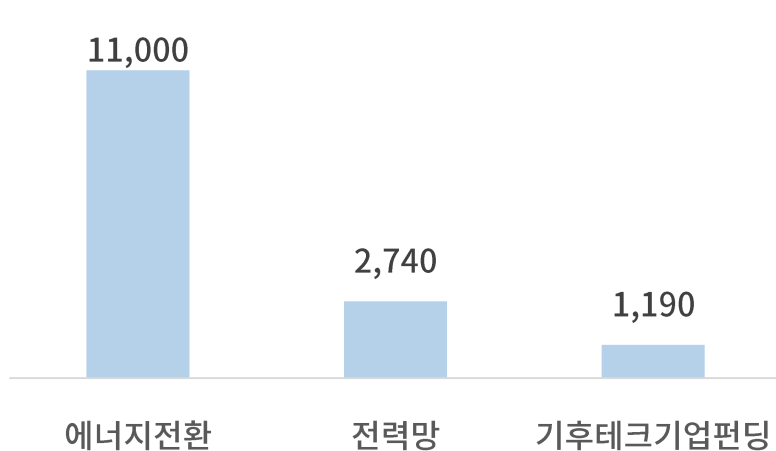
글로벌

- '22년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 투자금액은 1.6조 달러 (2023, 블룸버그)
- 에너지전환 1.1조 달러, 전력망 2,740억 달러, 기후테크 기업 펀딩이 1,190억 달러를 차지
 - *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분야 4,950억 달러(전년 대비 31% ↑)
 - *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 등 수송 전기화 부문 투자 금액 4,660억 달러(전년 대비 54% ↑)
- 국가 : 중국(5.5천억달러) > 유럽(1.8천억달러) > 미국(1.4천억달러) 순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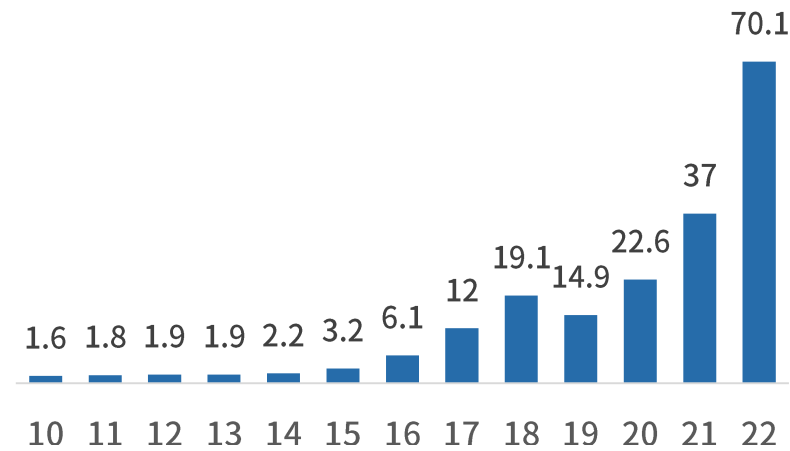
-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701억 달러 이상을 투자 (총 3,325건)하며 빠른 성장세 (2022, 글로벌 VC)
- 기후테크 VC 투자는 연평균 성장률 84%로 전체 VC시장 성장률(18%)의 5배 기록

[글로벌 기후테크 투자금액]



억달러,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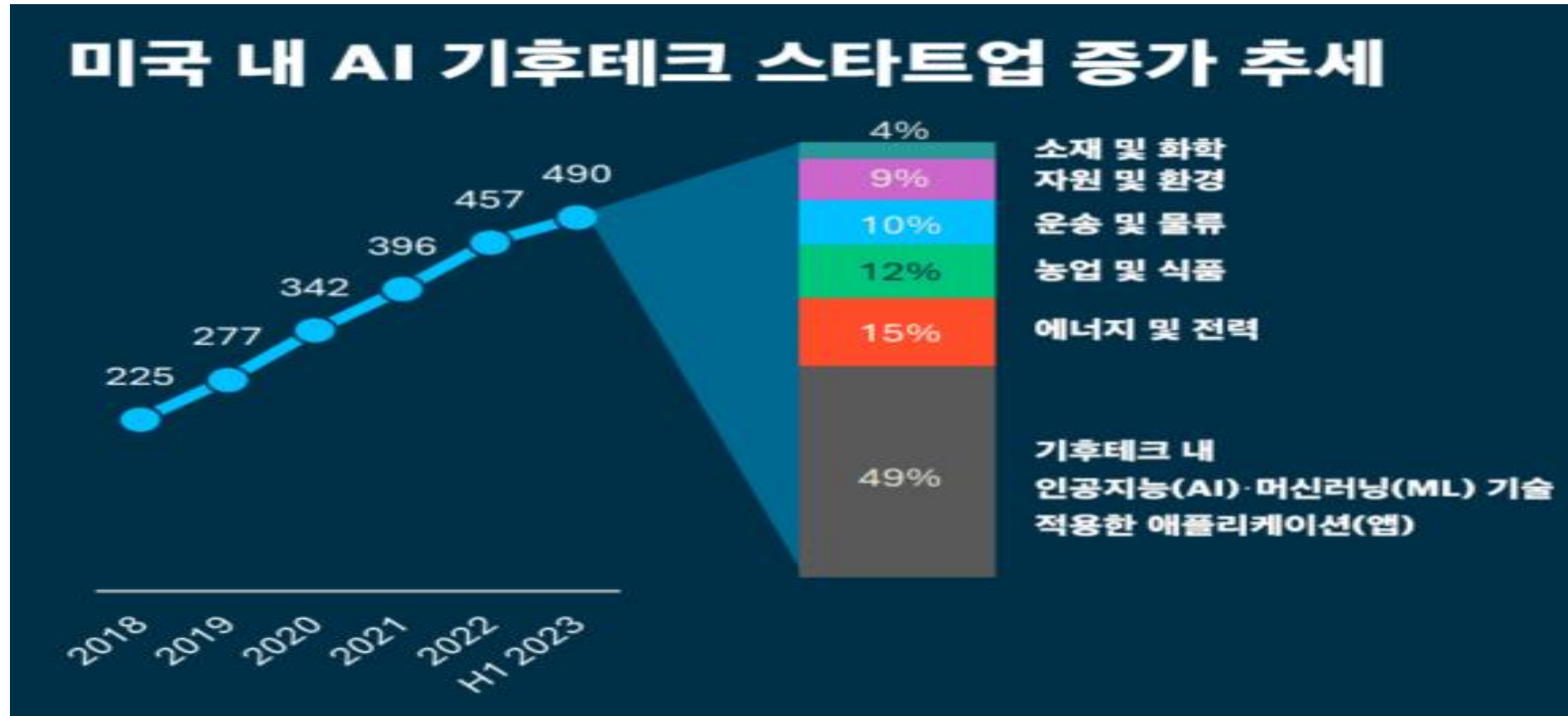
[VC 기후테크 투자 추이]



십억달러, HolonI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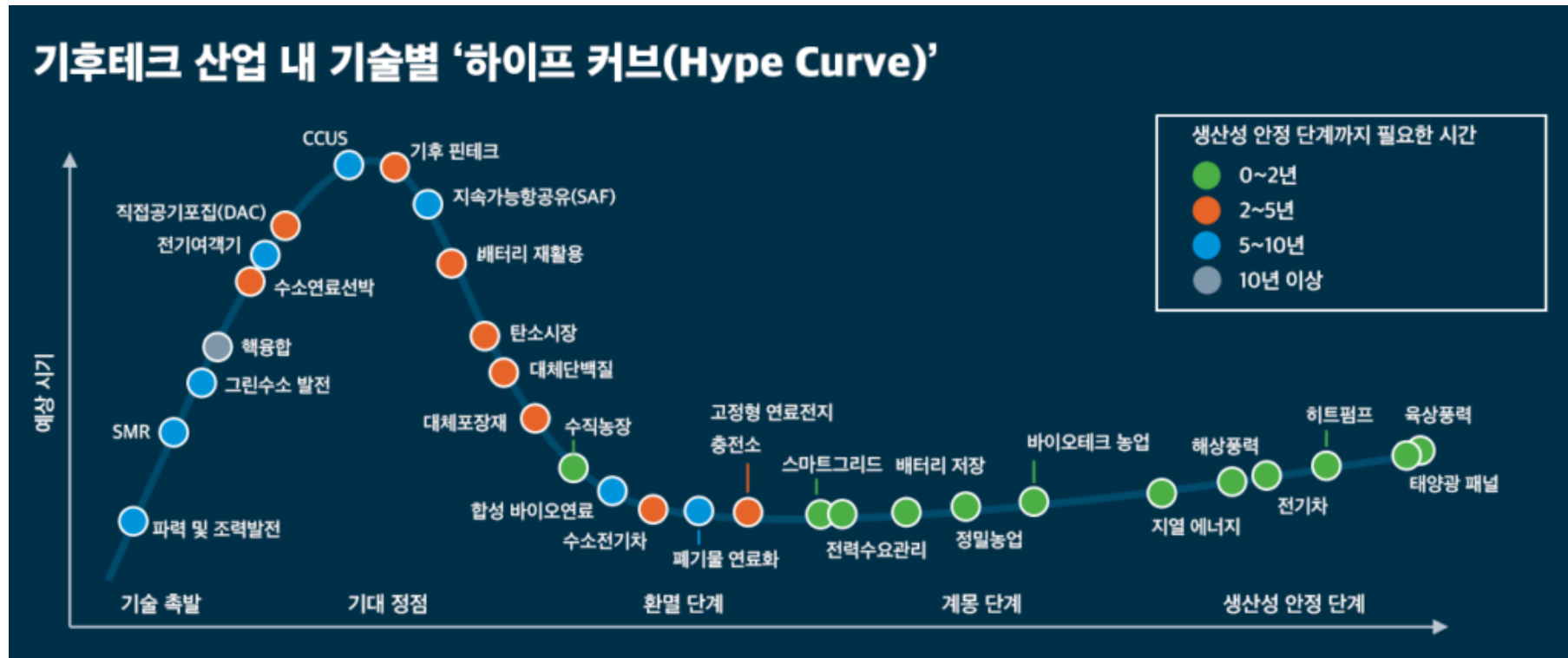
5 기후테크 투자 동향

- AI 기반 기후테크 스타트업 2018년 225개 → 2023년 490개로 증가
 - “과거 청정에너지 붐이 하드웨어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의 기후테크는 AI나 소프트웨어 등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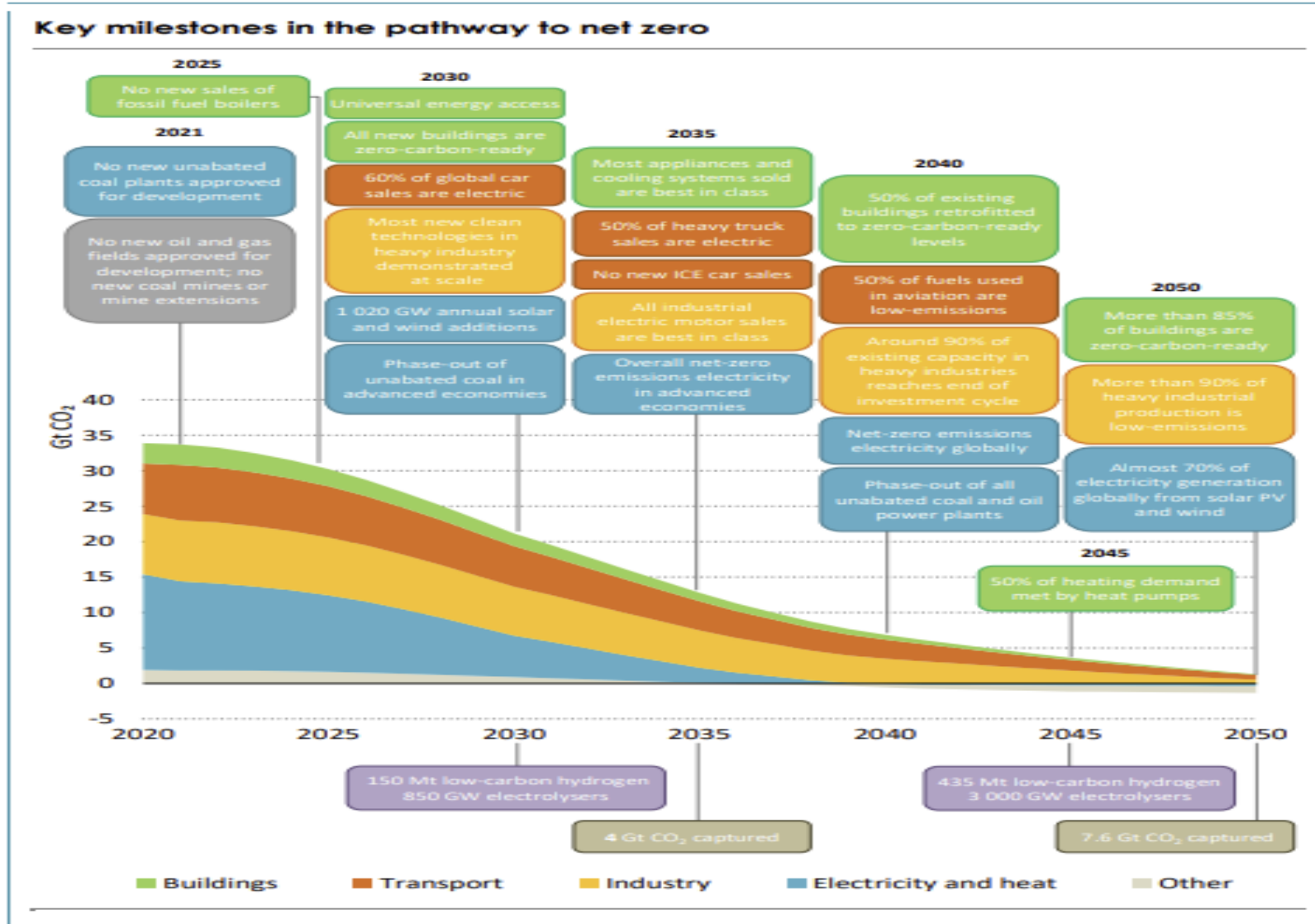


5 기후테크 산업, 기술별 어느 단계까지 왔나?

- SVB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테크 산업 내 30개 기술의 ‘하이프 커브(Hype Curve)’ 를 제공.
- 기술의 발전 주기는 크게 ①기술 촉발기 ②기대 정점기 ③환멸 단계 ④계몽 단계 ⑤생산성 안정 단계 순으로 진행.
- 기술이 처음 촉발돼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기대의 정점: 파력 및 조력발전·소형모듈원전(SMR)·핵융합·직접공기포집(DAC) 등
- 이후 상용화된 제품이나 가치도 증명되지 못해 다수의 실패 사례가 나오며 환멸 단계: 수직농장·수소전기차·폐기물 연료화 등
- 이 단계를 넘으면 기술이 안정기에 접어들며 꾸준히 성장: 해상풍력·전기자동차·육상풍력·태양광 패널 등
-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태양광 설치 비용은 80% 하락하고 풍력터빈 효율도 2배 이상 증가”라고 설명.
- 여러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들도 적절한 투자와 기술개발만 있다면 생산성 안정 단계에 접어들 것.



IEA 넷제로 핵심이정표



THANK YOU

